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상인 성격의 설문분석

고우석 · 이의주 · 김경수 · 고병희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의학과

### Abstract

#### The Study on Sasangin's Characteristic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 Wo-Suk, Lee Eui-Ju, Kim Kyung-Soo, Ko Byung-Hee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

##### 1.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about the Sasang constitu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based on the questions that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 2. Methods

146 children who have visited Kang-Nam Kyung-Hee Oriental Hospital Sasang constitution center from Mar. 2003 to May. 2005, were investigated through the questionnaires. These have the categories of personality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personal relationship, playing and the way to handle things such as jobs or missions, behavioral characteristics, and etc., were analyzed statistically.

##### 3. Results and Conclusions

- (1) In the category of the 'Personality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significantly more Soeumin showed positive answers to the question, 'being easily nervous and get irritated' than the other groups, and significantly more Taeumin to the question, 'considerate and thoughtful' than Soyangin.
- (2) In the category of the 'Personal relationship', there were significantly more Soyangin who showed positive answer to the question 'making a friend easily' than the other groups.
- (3) In the category of the 'playing and the way to handle things', significantly more Soeumin showed positive answer to the question, 'love to do the exercise' than Soyangin, and significantly more Soeumin showed positive answer to the question, 'not careful and meticulous' than Soyangin, and significantly more Soeumin showed positive answer to the question, 'like to read books' than Taeumin.
- (4) In the category of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significantly more Soyangin showed positive answer to the question, 'unable to concentrate just one thing even for just a minute and keep on moving.' than the other groups, and significantly more Soyangin showed positive answer to the question, 'act or response quick.' than Taeumin, and significantly more Soyangin showed positive answer to the question, 'behave and go around restlessly and flighty' than Soeumin, and significantly more Taeumin showed the positive answer to the question, 'hate to move by oneself' than Soyangin.

**Key words** : Childhood, Sasang Constitutional Characteristics

### I. 緒 論

證治醫學에서는 小兒患者를 치료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小兒만이 가지고 있는 特徵을 이해하는 것으로 보고 오랜 시간 동안 많은 醫家들이 小兒의 生理的·病理的 特徵에 대해 여러 가지 學說을 제기해 왔다.

- 접수일 2006년 02월 28일; 승인일 2006년 04월 03일
- 교신저자 : 이의주
-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사상체질과  
Tel : +82-2-958-9233 Fax : +82-2-958-9234  
E-mail : sasangin@paran.com
- "이 논문은 2005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5-신진교수연구지원-E00314)

최근에 있어서는 小兒의 特徵을 體質에 통합해서 보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져, 鄭<sup>1</sup>은 小兒의 特徵을 小兒의 體質로 인식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體質分類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小兒의 體質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sup>2</sup>.

한편, 東武 李濟馬(1837-1900)는 일찍이 四象醫學에서 사람을 太陽人·少陽人·太陰人·少陰人 네 體質로 구분하고 각 體質에 따라 生理, 病理 및 治療와 藥物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東醫壽世保元』<sup>3</sup> 「四端論」에서 “太少陰陽之臟局短長 陰陽之變化也 天稟之已定 固無可論...”이라 하여 사람의 體質은 본래 타고난 것이라 명백히 밝히고 있는데 이는 小兒에 있어서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病證論의 여러 부분에서 小兒의 治療例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실제적으로 四象醫學을 小兒에 適用하는데 있어 體質의 客觀的인 診斷이라는 측면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小兒의 四象體質鑑別은 成人에 비해 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또한 小兒는 成人과는 다른 生理, 病理의 特徵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臨床適用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sup>4,5</sup>.

또한 既存의 客觀적으로 體質을 診斷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방법들, 즉 說問에 의한 방법(QSCQ)<sup>6</sup>, 신체계측법<sup>7</sup>, 안면계측법<sup>8</sup>, 음성진단법<sup>9</sup> 등은 小兒, 특히 初等學校이하의 兒童을 대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小兒의 體質과 관련된 연구로는 閔 등<sup>2</sup>의 “小兒의 體質의 特性和 四象醫學의 考察”, 韓 등<sup>3</sup>의 “小兒의 四象體質別 疾病 및 症狀 類型의 차이”, 金<sup>10</sup>의 “四象體質別 幼兒들의 體格, 氣質 및 行動特성에 관한 研究”, 그리고 최근에 金<sup>11</sup>의 “小兒體質鑑別에 대한 研究” 등이 있었고, 일반적인 小兒의 特성을 살펴보기 위한 說問紙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성격유형검사설문지인 MMTIC(어린이 성격유형설문지)<sup>12</sup>을 비롯하여 아동용 EAS (Emotionality, Activity, Sociability) 기질척도<sup>10</sup>, 영유아 기질측정 척도(IBQ)<sup>13</sup> 등이 있으며 그 외에 小兒의 氣質이나 特性和 관련한 여러 研究<sup>14-17</sup>가 있어왔다.

그렇지만 그간의 研究에서는 小兒의 包括的인 四象體質의 特성에 관한 研究 및 이를 통한 小兒 體質鑑別을 위한 客觀的 指標에 관한 研究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研究에서는 韓方病院에 內院한 小兒患者 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격 및 감정, 대인관계, 놀이 및 일처리, 행동특징 등에 관해 부모가 작성한 說問紙를 분석하는 작업을 통하여 초등학생의 四象體質의 特성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 II. 研究對象 및 方法

### 1. 研究對象

2003년 3월부터 2005년 5월 사이에 강남경희한방병원 사상체질센터에 내원하여 체질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체질이 확정된<sup>1)</sup> 초등학생 14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2. 研究方法

#### 1) 설문지

설문지는 아이의 고유특성 및 체질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부모가 평소에 관찰하였던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게 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먼저 이름, 성별, 나이, 학년, 기록자, 가족력, 학년별 키와 체중 등을 기입하게 하고, 다음에 성격 및 감정, 대인관계, 놀이 및 일처리, 행동특징, 단점, 장점 등에 대해서 2가지 내지 5가지 항목으로 기술하게 하였다.

#### 2) 자료정리방법

(1) 위의 설문지를 정리하는 작업에 있어서 먼저 대상자의 체질별 남녀에 따라 각각의 큰 항목에 속하는 응답내용을 번호순서로 나열하면서 응답횟수를 기록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세부문항에 대

1)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基準(體形氣象, 容貌詞氣, 性質材幹, 體質證과 體質病證 등)에 의하여 體質診斷을 하고, 主症狀에 대하여 3주 이상 四象處方을 처치하여 전문의의 치료방향과 다른 完實無病(四象人 疾病治療經過의 필수 체크 主要症狀으로 睡眠, 汗, 消化, 大便, 小便 등을 말함)의 조건에 한 가지 이상 不良反應이 있는 자는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부모의 체질경향성을 같이 참고하였음

Table 1. The Distribution of Gender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Male	Female	Total
Taeyangin	1 <sup>a)</sup> (0.7%)	0(0.0%)	1(0.7%)
Soyangin	17(11.7%)	19(13.0%)	36(24.6%)
Taeumin	31(21.2%)	35(24.0%)	66(45.2%)
Soeumin	31(21.2%)	12(8.2%)	43(29.5%)
Total	80(54.8%)	66(45.2%)	146(100.0%)

<sup>a)</sup> number of patients

한 기록은 최대한 부모가 실제로 자주 표현하는 용어를 그대로 취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응답내용이 똑같지는 않지만 내용상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응답은 응답횟수에 포함시키고 그 내용은 별도로 괄호 속에 표시해두었다.

(2) 큰 항목에 속하는 세부항목들은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상체질 전문가 집단의 합의에 따라 사상체질 특성별로 임의로 분류하였다.

(3) 자료 분석을 위해 환자의 기본정보와 응답내용을 excel을 이용하여 입력하였다.

(4) 위의 문항 중 응답빈도가 적은 문항이 많았던 관계로 전체연구대상자 중 5%이상에서 응답한 문항에 대해서만 성별, 학년별(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사상 체질별로 각각 통계적 분석결과를 살펴 보았다.

### 3. 資料分析方法

통계분석은 SPSS 11.5 for Windows를 사용하였다. 각 항목간의 유의성 검증은 chi-square test로 분석하였고, p<0.05 이하인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단, 사상체질별 차이 검증에서는 태양인이 단 한 명으로 너무 적어 나머지 세 체질간의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여기서 유의한 문항은 다중비교법으로 사후검정을 하였다.

## III. 結果 및 分析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 총 146명의 체질별 분포를 살펴보면, 태음인 66명(45.2%), 소음인 43명(29.5%), 소양

Table 2. The Distribution of Grades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Low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sup>b)</sup>	High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sup>c)</sup>	Total
Taeyangin	1 <sup>a)</sup> (0.7%)	0(0.0%)	1(0.7%)
Soyangin	12(8.2%)	24(16.4%)	36(24.6%)
Taeumin	18(12.3%)	48(32.9%)	66(45.2%)
Soeumin	16(11.0%)	27(18.5%)	43(29.5%)
Total	47(32.2%)	99(67.8%)	146(100.0%)

<sup>a)</sup> number of patients

<sup>b)</sup> 1~3 grades of elementary school, i.e. 7~9 ages.

<sup>c)</sup> 4~6 grades of elementary school, i.e. 10~12 ages.

인 36명(24.6%), 태양인 1명(0.7%)의 순이었고, 성별 분포는 남자 80명(54.8%), 여자 66명(45.2%)으로 남자가 많았다(Table 1).

학년별로는 초등저학년(초등1년~3년, 만 7세~9세)이 47명(32.2%), 초등고학년(초등4년~6년, 만 10세~12세)이 99명(67.8%)으로 초등고학년이 더 많았다(Table 2).

### 2. 성격 및 감정에 대한 응답 빈도

성격 및 감정에 대한 응답(총 55문항)에서 전체 연구대상자 중 5%이상 응답률을 보인 문항은 총 31문항이었으며, '성격이 느긋하다'(24.7%), '활발 명랑하다'(19.9%), '성격이 급하다'(19.1%) 등의 응답률이 높았다(Table 3).

성별에서 각 집단별로 20%이상 비교적 높게 응답한 문항은 '성격이 급하다'(남), '활발 명랑하다'(여), '성격이 느긋하다'(남, 여) 등이었으며,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으로는 '활발 명랑하다'(여>남), '조용하다'(여>남), '집중력이 있다'(남>여) 등이 있었다.

학년별에서 각 집단별로 20%이상 비교적 높게 응답한 문항은 '활발 명랑하다'(초등저), '성격이 느긋하다'(초등저, 초등고) 등이었으며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은 없었다.

사상체질별에서 각 집단별로 20%이상 비교적 높게 응답한 문항은 '성격이 급하다'(소양인), '활발 명랑하다'(소양인), '눈물이 많고 감정이 여리다'(소양인), '성격이 느긋하다'(소양인, 태음인), '예민하다'(소음인), '신경질적이고 짜증 많다'(소음인)

Table 3. Response Frequency about the Personality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Gender, Grades,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Answer	Total, N(%) <sup>1)</sup>	Gender, N(%)		Grades, N(%)				Sasang constitution, N(%)			
			Male	Female	Low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High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Taeyangin	Soyangin	Taeumin	Soeumin
Tae yang	성격이 급하다 (조급해함)	28(19.1)	19 (23.8) <sup>  </sup>	9 (13.6)	9 (19.1)	9 (19.2)	1(100.0)	10 (27.8) <sup>  </sup>	12 (18.2)	5 (11.6)		
	참을성이 없다(근기, 인내심부족)	16(11.0)	10 (12.5)	6 (9.1)	4 (8.5)	12 (12.1)		5 (13.9)	5 (7.6)	6 (14.0)		
	완벽주의 성격이다	9(6.2)	4 (5.0)	5 (7.6)	3 (6.4)	6 (6.1)		4 (11.1)	5 (7.6)	0 (0.0)		
So yang	산만, 부산하다	13(8.9)	8 (10.0)	5 (7.6)	6 (12.8)	7 (7.1)		4 (11.1)	7 (10.6)	2 (4.7)		
	활발, 명랑하다(쾌활, 밝은성격)	29(19.9)	*9 (11.3)	20 (30.3) <sup>†</sup>	10 (21.3) <sup>  </sup>	19 (19.2)	1(100.0)	11 (30.6) <sup>†</sup>	9 (13.6)	8 (18.6)		
	집중력이 없다 (~부족함)	13(8.9)	5 (6.3)	8 (12.1)	5 (10.6)	8 (8.1)		3 (8.3)	8 (12.1)	2 (4.7)		
	사과기 긍정적이다 (낙천적임)	17(11.6)	8 (10.0)	9 (13.6)	3 (6.4)	14 (14.1)		4 (11.1)	7 (10.6)	6 (14.0)		
	잘웃는다	13(8.9)	8 (10.0)	5 (7.6)	7 (14.9)	6 (6.1)		3 (8.3)	5 (7.6)	5 (11.6)		
	좋고 싫은 것이 확실하다	8(5.5)	5 (6.3)	3 (4.5)	3 (6.4)	5 (5.1)		2 (5.6)	4 (6.1)	2 (4.7)		
	솔직, 정직하다	7(4.8)	3 (3.8)	4 (6.1)	3 (6.4)	4 (4.0)		3 (8.3)	3 (4.5)	1 (2.3)		
	화를 잘 낸다 (속하는 성격, 다혈질적임)	8(5.5)	4 (5.0)	4 (6.1)	3 (6.4)	5 (5.1)		3 (8.3)	4 (6.1)	1 (2.3)		
	감정의 기복이 있다	7(4.8)	4 (5.0)	3 (4.5)	2 (4.3)	5 (5.1)		1 (2.8)	4 (6.1)	2 (4.7)		
	호기심이 많다 (궁금한 점을 참물음, 주변일에관심)	10(6.8)	6 (7.5)	4 (6.1)	4 (8.5)	6 (6.1)	1(100.0)	2 (5.6)	5 (7.6)	2 (4.7)		
Tae um	눈물이 많고 감정이 여러다 (감수성, 감정 풍부)	21(14.4)	14 (17.5)	7 (10.6)	9 (19.1)	12 (12.1)		9 (25.0) <sup>  </sup>	7 (10.6)	5 (11.6)		
	겁이 많다 (무서움이 많음)	9(6.2)	6 (7.5)	3 (4.5)	5 (10.6)	4 (4.0)		3 (8.3)	1 (1.5)	5 (11.6)		
	욕심이 많다	9(6.2)	5 (6.3)	4 (6.1)	5 (10.6)	4 (4.0)		2 (5.6)	3 (4.5)	4 (9.3)		
	고집이 세다 (고지식함, 편견심함)	13(8.9)	8 (10.0)	5 (7.6)	6 (12.8)	7 (7.1)		4 (11.1)	7 (10.6)	2 (4.7)		
	성격이 느긋하다 (여유로움)	36(24.7)	17 (21.3) <sup>  </sup>	19 (28.8) <sup>  </sup>	10 (21.3) <sup>  </sup>	26 (26.3) <sup>  </sup>		9 (25.0) <sup>  </sup>	20 (30.3) <sup>†</sup>	7 (16.3)		

Tae um	끈기, 인내심이 있다(참을 성이있음)	8(5.5)	4 (5.0)	4 (6.1)	1 (2.1)	7 (7.1)			0 (0.0)	6 (9.1)	2 (4.7)
	인정이 많다 (다정다감, 동정심)	9(6.2)	6 (7.5)	3 (4.5)	4 (8.5)	5 (5.1)			3 (8.3)	4 (6.1)	2 (4.7)
So eum	예민하다 (민감함, 정서적으로 불안정함)	22(15.1)	13 (16.3)	9 (13.6)	7 (14.9)	15 (15.2)			6 (16.7)	7 (10.6)	9 (20.9) <sup>  </sup>
	신경질적 이고 짜증많다 (잔투정)	21(14.4)	14 (17.5)	7 (10.6)	8 (17.0)	13 (13.1)	1(100.0)	*a)2 (5.6)	7 (10.6)	11 (25.6) <sup>  </sup>	
	내성적이다	9(6.2)	6 (7.5)	3 (4.5)	5 (10.6)	4 (4.0)			1 (2.8)	4 (6.1)	4 (9.3)
	조용하다 (말이없음)	8(5.5)	*1 (1.3)	7 (10.6)	5 (10.6)	3 (3.0)			3 (8.3)	3 (4.5)	2 (4.7)
	소심, 소극적이다 (의기소침함, 수동적)	21(14.4)	12 (15.0)	9 (13.6)	8 (17.0)	13 (13.1)			2 (5.6)	11 (16.7)	8 (18.6)
	집중력이 있다 (~높음)	19(13.0)	*15 (18.8)	4 (6.1)	6 (12.8)	13 (13.1)			3 (8.3)	12 (18.2)	4 (9.3)
	자기중심 적이다 (자기합리화, 타인에대한 이해심부족)	7(4.8)	6 (7.5)	1 (1.5)	3 (6.4)	4 (4.0)			1 (2.8)	2 (3.0)	4 (9.3)
	생각이 깊다 (침착하고 차분함, 신중함, 사려깊음)	17(11.6)	8 (10.0)	9 (13.6)	5 (10.6)	12 (12.1)			*b)0 (0.0)	12 (18.2)	5 (11.6)
	온순하다 (유순, 순진, 온화, 착함)	21(14.4)	14 (17.5)	7 (10.6)	7 (14.9)	14 (14.1)			4 (11.1)	12 (18.2)	5 (11.6)
	섬세하다	7(4.8)	5 (6.3)	2 (3.0)	1 (2.1)	6 (6.1)			2 (5.6)	3 (4.5)	2 (4.7)
걱정이 많다 (생각이 많음)	7(4.8)	5 (6.3)	2 (3.0)	0 (0.0)	7 (7.1)			1 (2.8)	4 (6.1)	2 (4.7)	

<sup>||</sup>; This reflects the value between 20% and 30% of the response ratio in each group

\*; This reflects the value between 30% and 40% of the response ratio in each group

\*; This reflects the value above 40% of the response ratio in each group

\*; p-value<0.05(This reflects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groups of Gender, Grades, and Sasang constitution statistically)

a) Soeumin>Taeumin, Soyangin (by post hoc test), b) Taeumin > Soyangin(by post hoc test)

<sup>1)</sup> The value in brackets is the percentage of each column

Table 4. Response Frequency about the Personal Relationships according to Gender, Grades,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Answer	Total N(%) <sup>b)</sup>	Gender, N(%)		Grades, N(%)		Sasang constitution, N(%)			
			Male	Female	Low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High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Taeyang in	Soyangin	Taeumin	Soeumin
Tae yang	리더쉽이있다(친구들을잘이끌)	18(12.3)	10 (12.5)	8 (12.1)	3 (6.4)	15 (15.2)		5 (13.9)	8 (12.1)	5 (11.6)
	자기주장을잘내세운다(발표를잘함)	10(6.8)	6 (7.5)	4 (6.1)	4 (8.5)	6 (6.1)		3 (8.3)	4 (6.1)	3 (7.0)
So yang	친구를잘사귀고좋아한다(사교성좋음)	46(31.5)	27 (33.8) <sup>†</sup>	19 (28.8) <sup>‡</sup>	16 (34.0) <sup>†</sup>	30 (30.3) <sup>†</sup>	1(100.0)	<sup>**</sup> 21 (58.3) <sup>‡</sup>	15 (22.7) <sup>‡</sup>	9 (20.9) <sup>‡</sup>
	친구들로부터 인기가많다(친구들이잘따름)	8(5.5)	4 (5.0)	4 (6.1)	3 (6.4)	5 (5.1)		2 (5.6)	3 (4.5)	3 (7.0)
	유머감각이있다(다른사람을잘웃감)	7(4.8)	5 (6.3)	2 (3.0)	1 (2.1)	6 (6.1)		1 (2.8)	3 (4.5)	3 (7.0)
	부모나 선생님말을 잘듣고 시키는대로 잘 따라한다(순종적임)	9(6.2)	4 (5.0)	5 (7.6)	*6 (12.8)	3 (3.0)		2 (5.6)	5 (7.6)	2 (4.7)
	멋을많이낸다(웃입기,외모,헤어스타일에신경씀)	18(12.3)	*2 (2.5)	16 (24.2) <sup>‡</sup>	7 (14.9)	11 (11.1)		7 (19.4)	4 (6.1)	7 (16.3)
Tae um	자신감이없다	12(8.2)	8 (10.0)	4 (6.1)	6 (12.8)	6 (6.1)		2 (5.6)	7 (10.6)	3 (7.0)
	남을 배려할 줄 안다(남에게 싫은소리를 안한다)	24(16.4)	9 (11.3)	15 (22.7) <sup>‡</sup>	11 (23.4) <sup>‡</sup>	13 (13.1)	1(100.0)	5 (13.9)	13 (19.7) <sup>‡</sup>	5 (11.6)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37(25.3)	18 (22.5) <sup>‡</sup>	19 (28.8) <sup>‡</sup>	8 (17.0)	29 (29.3) <sup>‡</sup>		7 (19.4)	16 (24.2) <sup>‡</sup>	14 (32.6) <sup>†</sup>
So cum	친구사귀기가 어렵다(비사교적)	15(10.3)	11 (13.8)	4 (6.1)	6 (12.8)	9 (9.1)		2 (5.6)	8 (12.1)	5 (11.6)
	처음사귀는 어렵지만 친해지면 활발하다	15(10.3)	7 (8.8)	8 (12.1)	8 (17.0)	7 (7.1)		5 (13.9)	6 (9.1)	4 (9.3)
	친한친구와는 지나칠 정도로 가깝게 지낸다(단짝친구, 친한친구 몇 명과 골라 사귀)	26(17.8)	16 (20.0) <sup>‡</sup>	10 (15.2)	7 (14.9)	19 (19.2)		4 (11.1)	15 (22.7) <sup>‡</sup>	7 (16.3)
	멋내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외모에 신경 안씀)	7(4.8)	5 (6.3)	2 (3.0)	2 (4.3)	5 (5.1)		3 (8.3)	2 (3.0)	2 (4.7)
	수줍음을 많이 탄다(낮가림, 부끄럼이많음)	14(9.6)	10 (12.5)	4 (6.1)	*8 (17.0)	6 (6.1)		4 (11.1)	7 (10.6)	3 (7.0)
	쉽게 상처받는다(상대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	11(7.5)	7 (8.8)	4 (6.1)	6 (12.8)	5 (5.1)	1(100.0)	2 (5.6)	2 (3.0)	6 (14.0)

<sup>‡</sup> ; This reflects the value between 20% and 30% of the response ratio in each group  
<sup>†</sup> ; This reflects the value between 30% and 40% of the response ratio in each group  
<sup>‡</sup> ; This reflects the value above 40% of the response ratio in each group  
<sup>\*</sup> ; p-value<0.05(This reflects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groups of Gender, Grades, and Sasang constitution statistically)  
<sup>a)</sup> Soyangin>Taeumin, Soeumin(by post hoc test)  
<sup>b)</sup> The value in brackets is the percentage of each column

등이었으며, 체질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으로는 '신경질적이고 짜증 많다'(소음인>태음인, 소양인), '생각이 깊다'(태음인>소양인) 등이 있었다.

### 3. 대인관계에 대한 응답 빈도

대인관계에 대한 응답(총 39문항)에서 전체연구 대상자 중 5%이상 응답률을 보인 문항은 총 16문항이었으며, 특히 '친구를 잘 사귀고 좋아한다'(31.5%), '대인관계가 원만하다'(25.3%), '친한 친구와는 지나칠 정도로 가깝게 지낸다'(17.8%) 등의 비율이 높았다(Table 4).

성별에서 각 집단별로 20%이상 높게 응답한 문항은 '친구를 잘 사귀고 좋아한다'(남, 여), '멋을 많이 낸다'(여), '남을 배려할 줄 안다'(여), '대인관계가 원만하다'(남, 여), '친한 친구와는 지나칠 정도로 가깝게 지낸다'(남) 등이었으며,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문항으로는 '멋을 많이 낸다'(여>남)의 한 문항이 있었다.

학년별에서 각 집단별로 20%이상 높게 응답한 문항으로는 '친구를 잘 사귀고 좋아한다'(초등저, 초등고), '남을 배려할 줄 안다'(초등저, 초등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다'(초등고) 등이었으며,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으로는 '부모나 선생님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한다'(초등저>초등고), '수줍음을 많이 탄다'(초등저>초등고) 등이었다.

사상체질별에서 각 집단별로 20%이상 높게 응답한 문항은 '친구를 잘 사귀고 좋아한다'(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대인관계가 원만하다'(태음인, 소음인), '친한 친구와는 지나칠 정도로 가깝게 지낸다'(태음인) 등이었으며 체질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으로는 '친구를 잘 사귀고 좋아한다'(소양인>태음인, 소음인)의 한 문항이 있었다.

### 4. 놀이 및 일처리에 대한 응답 빈도

놀이 및 일처리에 대한 응답(총 75문항)에서 전체연구대상자 중 5%이상 응답률을 보인 문항은 총 30문항이었으며, 특히 '일처리에 꼼꼼하다'(30.1%), '조립을 잘한다'(29.5%), '손재주가 있다'(26.7%), '운

동을 좋아한다'(22.6%) 등의 비율이 높았다(Table 5).

성별에서 각 집단별로 20%이상 응답한 문항은 '운동을 좋아한다'(남), '자신의 일에 책임감이 있다'(남), '그림그리기를 좋아한다'(여), '일처리에 꼼꼼하다'(남, 여), '손재주가 있다'(남, 여), '조립을 잘한다'(남) 등이었으며, 남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으로는 '이해습득능력이 빠르다'(남>여), '악기를 잘 다룬다'(여>남), '예능계통에 관심 소질이 많다'(여>남), '운동을 좋아한다'(남>여), '수리력이 뛰어나다'(남>여),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여>남), '기억력이 좋다'(남>여), '한 가지 놀이에 깊이 빠진다'(남>여), '그림그리기를 좋아한다'(여>남), '조립을 잘한다'(남>여) 등이 있었다.

학년별에서 각 집단별로 20%이상 응답한 문항은 '운동을 좋아한다'(초등고), '자신의 일에 책임감이 있다'(초등고), '그림그리기를 좋아한다'(초등저), '일처리에 꼼꼼하다'(초등저, 초등고), '손재주가 있다'(초등저, 초등고), '조립을 잘한다'(초등저, 초등고) 등이 있었으며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으로는 '그림그리기를 좋아한다'(초등저>초등고)의 한 문항이 있었다.

사상체질별에서 각 집단별로 20%이상 비교적 높게 응답한 문항은 '운동을 좋아한다'(소음인), '자신의 일에 책임감이 있다'(태음인), '그림그리기를 좋아한다'(소양인), '일처리에 꼼꼼하다'(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손재주가 있다'(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조립을 잘한다'(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소음인) 등이 있었으며, 체질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으로는 '운동을 좋아한다'(소음인>소양인), '꼼꼼하지 않다'(소음인>소양인),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소음인>태음인) 등이 있었다.

### 5. 행동특징에 대한 응답 빈도

행동특징에 대한 응답(총 45문항)에서 전체연구대상자 중 5%이상 응답률을 보인 문항은 총 10문항이었으며, 특히 '잠시도 가만있지 않고 계속 움직인다'(21.9%), '행동이 느리다'(20.5%), '움직이는 것을 싫어한다'(19.9%), '행동이 빠르고 민첩하다'

Table 5. Response Frequency about the 'Playing' and 'the Way to Handle something' according to Gender, Grades,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Answer	Total, N(%) <sup>b</sup>	Gender, N(%)		Grades, N(%)		Sasang constitution, N(%)			
			Male	Female	Low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High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Taeyang in	Soyangin	Taeumin	Soeumin
Tae yang	시기적절하게 말을 잘 한다(언어표현력, 말솜씨가 좋음)	8(5.5)	3 (3.8)	5 (7.6)	2 (4.3)	6 (6.1)		1 (2.8)	4 (6.1)	3 (7.0)
	이해습득능력이 빠르다 (학습능력이 좋음)	10(6.8)	*9 (11.3)	1 (1.5)	3 (6.4)	7 (7.1)		1 (2.8)	5 (7.6)	4 (9.3)
	악기를 잘 다룬다 (바이올린, 피아노)	8(5.5)	*1 (1.3)	7 (10.6)	1 (2.1)	7 (7.1)		1 (2.8)	3 (4.5)	4 (9.3)
	창의력이 좋다 (독창성)	12(8.2)	7 (8.8)	5 (7.6)	4 (8.5)	8 (8.1)	1(100.0)	4 (11.1)	5 (7.6)	2 (4.7)
	머리가 좋다(똑똑함, 머리카락이 빠름)	7(4.8)	4 (5.0)	3 (4.5)	0 (0.0)	7 (7.1)		2 (5.6)	3 (4.5)	2 (4.7)
	예능계통에 관심, 소질이 많다(장식미술, 디자인, 꾸미기, 음악, 미적감각.)	12(8.2)	*1 (1.3)	11 (16.7)	5 (10.6)	7 (7.1)		2 (5.6)	7 (10.6)	3 (7.0)
So yang	운동을 좋아한다 (수영, 스키, 구기종목, 태권도)	33(22.6)	*26 (32.5) <sup>†</sup>	7 (10.6)	7 (14.9)	26 (26.3) <sup>‡</sup>	1(100.0)	*5 (13.9)	12 (18.2)	15 (34.9) <sup>†</sup>
	운동신경이 좋다 (운동을 잘함)	10(6.8)	7 (8.8)	3 (4.5)	2 (4.3)	8 (8.1)		5 (13.9)	3 (4.5)	2 (4.7)
	수리력이 뛰어나다 (수학적 사고발달, 숫자에 관심)	9(6.2)	*8 (10.0)	1 (1.5)	4 (8.5)	5 (5.1)		1 (2.8)	6 (9.1)	2 (4.7)
	승부욕이 있다 (경쟁심, 지기싫어함)	18(12.3)	13 (16.3)	5 (7.6)	6 (12.8)	12 (12.1)		6 (16.7)	7 (10.6)	5 (11.6)
	정리정돈을 잘 못한다 (방 정리안함, 주변 정리 못함)	17(11.6)	8 (10.0)	9 (13.6)	4 (8.5)	13 (13.1)		7 (19.4)	6 (9.1)	4 (9.3)
	꿈꿈하지 않다 (공부나 일을 대충함, 덤벼거림)	15(10.3)	11 (13.8)	4 (6.1)	2 (4.3)	13 (13.1)	1(100.0)	*0 (0.0)	7 (10.6)	7 (16.3)
	끝맺음을 잘 못한다 (별려만놓고 마무리를 잘 못함, 뒤처리 안함)	8(5.5)	6 (7.5)	2 (3.0)	2 (4.3)	6 (6.1)	1(100.0)	1 (2.8)	3 (4.5)	3 (7.0)
	모든일에 적극적이다 (매사에 의욕이 넘침)	8(5.5)	2 (2.5)	6 (9.1)	*0 ((0.0)	8 (8.1)		2 (5.6)	5 (7.6)	1 (2.3)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 (노래를 잘함)	10(6.8)	*2 (2.5)	8 (12.1)	6 (12.8)	4 (4.0)		3 (8.3)	5 (7.6)	2 (4.7)
Tae um	과학에 흥미가 있다 (과학적 사고발달, 기계등의 원리를 알고 싶어함, 실험을잘함)	8(5.5)	7 (8.8)	1 (1.5)	3 (6.4)	5 (5.1)		2 (5.6)	3 (4.5)	3 (7.0)
	기억력이 좋다 (암기력)	13(8.9)	*11 (13.8)	2 (3.0)	5 (10.6)	8 (8.1)		2 (5.6)	6 (9.1)	5 (11.6)
	컴퓨터, 게임을 잘한다	8(5.5)	7 (8.8)	1 (1.5)	2 (4.3)	6 (6.1)		1 (2.8)	4 (6.1)	3 (7.0)
	자신의 일에 책임감이 있다 (자기일을 스스로 알아서 함)	29(19.9)	19 (23.8) <sup>‡</sup>	10 (15.2)	8 (17.0)	21 (21.2) <sup>‡</sup>		7 (19.4)	14 (21.2) <sup>‡</sup>	8 (18.6)
성실하다(부지런 함)	9(6.2)	7 (8.8)	2 (3.0)	1 (2.1)	8 (8.1)		0 (0.0)	4 (6.1)	5 (11.6)	



Taeum	어떤것이든 처음시도를 어려워한다(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함, 새로운 일을 귀찮아함, 실패를 두려워해 일을 진행시키기 어려움)	9(6.2)	7 (8.8)	2 (3.0)	2 (4.3)	7 (7.1)		2 (5.6)	4 (6.1)	3 (7.0)
	그림그리기를 좋아한다(그림을 잘 그릴, 만화, 미술에 재능 있음)	24(16.4)	*8 (10.0)	16 (24.2) <sup>  </sup>	*13 (27.7) <sup>  </sup>	11 (11.1)		10 (27.8) <sup>  </sup>	8 (12.1)	6 (14.0)
Soeum	일처리에 꼼꼼하다	44(30.1)	26 (32.5) <sup>†</sup>	18 (27.3) <sup>  </sup>	11 (23.4) <sup>  </sup>	33 (33.3) <sup>†</sup>		9 (25.0) <sup>†</sup>	22 (33.3) <sup>†</sup>	13 (30.2) <sup>†</sup>
	끝맺음을 잘한다	8(5.5)	6 (7.5)	2 (3.0)	3 (6.4)	5 (5.1)		0 (0.0)	5 (7.6)	3 (7.0)
	손재주가 있다(종이접기, 십자수, 만들기)	39(26.7)	17 (21.3) <sup>  </sup>	22 (33.3) <sup>†</sup>	12 (25.5) <sup>  </sup>	27 (27.3) <sup>  </sup>		9 (25.0) <sup>  </sup>	18 (27.3) <sup>  </sup>	12 (27.9) <sup>  </sup>
	조립을 잘한다(레고만들기, 블록, 퍼즐을 즐김)	43(29.5)	*35 (43.8) <sup>‡</sup>	8 (12.1)	18 (38.3) <sup>†</sup>	25 (25.3) <sup>  </sup>	1(100.0)	12 (33.3) <sup>†</sup>	17 (25.8) <sup>  </sup>	13 (30.2) <sup>†</sup>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흥미를 많이 느낀다(관심분야 좋아하는 일에 집중력이 높음)	16(11.0)	10 (12.5)	6 (9.1)	8 (17.0)	8 (8.1)		4 (11.1)	7 (10.6)	5 (11.6)
	책 읽는것을 좋아 한다	22(15.1)	10 (12.5)	12 (18.2)	8 (17.0)	14 (14.1)		* <sup>a</sup> 6 (16.7)	5 (7.6)	11 (25.6) <sup>  </sup>
	글쓰는 재주가 있다(글쓰기를 좋아함)	10(6.8)	3 (3.8)	7 (10.6)	3 (6.4)	7 (7.1)		3 (8.3)	3 (4.5)	4 (9.3)
	정리정돈을 잘한다	8(5.5)	4 (5.0)	4 (6.1)	3 (6.4)	5 (5.1)		4 (11.1)	2 (3.0)	2 (4.7)

<sup>||</sup>; This reflects the value between 20% and 30% of the response ratio in each group

<sup>†</sup>; This reflects the value between 30% and 40% of the response ratio in each group

<sup>‡</sup>; This reflects the value above 40% of the response ratio in each group

\*; p-value<0.05(This reflects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groups of Gender, Grades, and Sasang constitution statistically)

<sup>a)</sup> Soeumin>Soyangin(by post hoc test), <sup>b)</sup> Soeumin>Soyangin(by post hoc test)

<sup>c)</sup> Soeumin>Taeumin(by post hoc test)

<sup>||)</sup> The value in brackets is the percentage of each column

(19.2%) 등의 비율이 높았다(Table 6).

성별에서 각 집단별로 20%이상 높게 응답한 문항은 ‘잠시도 가만있지 않고 계속 움직인다’(여), ‘행동이 빠르고 민첩하다’(남), ‘행동이 느리다’(남, 여), ‘움직이는 것을 싫어한다’(남, 여) 등이었으며,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으로는 ‘덜렁거린다’(여>남)의 한 문항이 있었다.

학년별에서 각 집단별로 20%이상 높게 응답한 문항은 ‘잠시도 가만있지 않고 계속 움직인다’(초등저), ‘행동이 빠르고 민첩하다’(초등저), ‘행동이 느리다’(초등저, 초등고), ‘움직이는 것을 싫어한다’(초등고) 등이었으며,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인 문항으로는 ‘잠시도 가만있지 않고 계속 움직인다’(초등저>초등고)가 있었다.

사상체질별에서 각 집단별로 20%이상 높게 응답한 문항은 ‘잠시도 가만있지 않고 계속 움직인다’(소양인, 소음인), ‘행동이 빠르고 민첩하다’(소양인, 소음인), ‘행동이 느리다’(태음인, 소음인), ‘움직이는 것을 싫어한다’(태음인, 소음인) 등이었으며, 체질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으로는 ‘잠시도 가만있지 않고 계속 움직인다’(소양인>소음인, 태음인), ‘행동이 빠르고 민첩하다’(소양인>태음인), ‘덜렁거린다’(소양인>소음인), ‘움직이는 것을 싫어한다’(태음인>소양인) 등이 있었다.

Table 6. Response Frequency about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Gender, Grades,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Answer	Total, N(%) <sup>b)</sup>	Gender, N(%)		Grades, N(%)		Sasang constitution, N(%)			
			Male	Female	Low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High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Taeyangin	Soyangin	Taeumin	Soeumin
So yang	잠시도 가만 있지않고 계속 움직인다(활동적, 활동량 많음, 야외 놀이를 즐김)	32(21.9)	15 (18.8)	17 (25.8) <sup>  </sup>	*15 (31.9) <sup>†</sup>	17 (17.2)		<sup>a)</sup> 16 (44.4) <sup>‡</sup>	7 (10.6)	9 (20.9) <sup>  </sup>
	행동이 빠르고 민첩하다 (날렵, 순발력)	28(19.2)	18 (22.5) <sup>  </sup>	10 (15.2)	11 (23.4) <sup>  </sup>	17 (17.2)	1 (100.0)	<sup>b)</sup> 12 (33.3) <sup>†</sup>	6 (9.1)	9 (20.9) <sup>  </sup>
	덜렁거린다	12(8.2)	<sup>*</sup> 2 (2.5)	10 (15.2)	3 (6.4)	9 (9.1)		<sup>c)</sup> 6 (16.7)	6 (9.1)	0 (0.0)
	장난기가 많다	7(4.8)	5 (6.3)	2 (3.0)	1 (2.1)	6 (6.1)		4 (11.1)	1 (1.5)	2 (4.7)
Tae um	행동이 느리다(둔함)	30(20.5)	17 (21.3) <sup>  </sup>	13 (19.7) <sup>  </sup>	10 (21.3) <sup>  </sup>	20 (20.2) <sup>  </sup>		5 (13.9)	16 (24.2) <sup>  </sup>	9 (20.9) <sup>  </sup>
	움직이는 것을 싫어한다 (운동을 싫어함, 활동적인면 부족, 정적인)	29(19.9)	16 (20.0) <sup>  </sup>	13 (19.7) <sup>  </sup>	8 (17.0)	21 (21.2) <sup>  </sup>		<sup>d)</sup> 2 (5.6)	18 (27.3) <sup>  </sup>	9 (20.9) <sup>  </sup>
So eum	자주 앉거나 누우려고 한다(누워있기 좋아함, 앉아서 폼지락거리는 걸 많이 함)	11(7.5)	7 (8.8)	4 (6.1)	2 (4.3)	9 (9.1)		1 (2.8)	6 (9.1)	4 (9.3)
	불어뜯는 바릇이 있다(손톱, 손가락)	8(5.5)	5 (6.3)	3 (4.5)	4 (8.5)	4 (4.0)	1 (100.0)	0 (0.0)	4 (6.1)	3 (7.0)
	체력이 약해 쉽게 지치는 편이다(조금만 걸어도 힘들다고 함, 지구력부족)	12(8.2)	7 (8.8)	5 (7.6)	3 (6.4)	9 (9.1)		3 (8.3)	5 (7.6)	4 (9.3)
	아침에 잘 못일어난다(아침잠이 많음)	10(6.8)	3 (3.8)	7 (10.6)	2 (4.3)	8 (8.1)		3 (8.3)	4 (6.1)	3 (7.0)

||; This reflects the value between 20% and 30% of the response ratio in each group  
 †; This reflects the value between 30% and 40% of the response ratio in each group  
 ‡; This reflects the value above 40% of the response ratio in each group  
 \*; p-value<0.05(This reflects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groups of Gender, Grades, and Sasang constitution statistically)  
 a) Soyangin>Soeumin, Taeumin (by post hoc test), b) Soyangin>Taeumin(by post hoc test)  
 c) Soyangin>Soeumin(by post hoc test), d) Taeumin>Soyangin(by post hoc test)  
 1) The value in brackets is the percentage of each column

#### IV. 考 察

『소아과학』<sup>19</sup>에서는 소아과에서 대상으로 하는 연령을 20세까지로 잡는 것이 적당하다고 전제하고 소아과학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소아과학은 임신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소아의 건강문제를 전인적으로 다루는 의학의 한 분야로서, 모든 발육 과정을 통하여 소아가 가진 신체, 지능, 정서 및 사회적 능력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의 일원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아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The child is not a little man)”이라는 말은 예로부터 강조되어 왔지만, 항상 성장과 발달을 계속하고 있는 소아를 제대로 평가 하려면 소아의 각 발육 단계에 따르는 특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아기를 분류할 때 출생전기(prenatal period), 신생아기(neonatal period or newborn), 영아기(infancy), 유아기(preschool period or early childhood), 학동기(late childhood or prepuberal period), 사춘기(puberty)의 다섯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성인에 비하여 소아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신생아기에서 유아기에 이르는 기간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점차 유아기를 지나서 학동기에 들어가면서 소아의 특이성은 적어지고 사춘기에 들어가면 소아의 특징은 더욱 적어지며 성인으로 이행하게 된다고 하였다<sup>18</sup>.

한편, 『東醫寶鑑』<sup>20</sup>에서는 소아의 병은 치료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소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종합하였다.

“예로부터 ‘차라리 十人의 남자를 다스릴지언정 한 부인을 다스리기가 어렵고, 또 차라리 十人의 부인을 다스릴지언정 한 소아를 다스리기가 어렵다’라고 하였으니 대개 소아는 증세를 물을 수도 없고 맥을 진찰할 수도 없으니 더욱 구원하기가 어렵다(入門)”.  
 “또한 소아는 그 臟腑가 脆嫩하고 皮膚가 軟弱하여 血氣가 盛하지 않고 經絡이 실끝과 같으며 脈息이 털과 같아 虛하기도 쉽고 實하기도 쉬우며 冷하기도 쉽고 熱하기도 쉬운데 겹하여 입으로 말

하지 못하고 손으로 가리키지도 못하므로 疾痛하는 症을 알 수가 없고 다만 얼굴을 보고 다만 빛을 살펴서 소리를 듣고 脈을 만져보아 그 病源을 研究하고 陰陽과 表裏와 虛實을 詳定하여 다스리는 도리 밖에 없으니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得效)”.

이러한 배경에 의해 그간 역대 醫家들의 소아의 생리 및 병리적 특징에 관한 연구가 있어왔으며 더불어 최근 중국에서는 소아의 체질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 鄭<sup>1</sup>은 『略論小兒體質三論』에서 역대 문헌에 언급된 소아의 체질을 純陽說, 稚陰稚陽說, 少陽說의 三說이라고 정리하고 이러한 三論이 소아의 체질을 설명하는데 국한적이므로 소아의 성장발육단계에서의 체질생리적 공통성을 설명할 수는 있으나 개개의 소아체질인 개체체질의 차이는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三論을 기초로 과학적, 합리적, 실용적인 새로운 소아체질분류방법을 만들 것을 주장하였다<sup>2</sup>.

한편, 東武 李濟馬(1837-1900)는 일찍이 四象醫學에서 사람을 太陽人·少陽人·太陰人·少陰人 네 체질로 구분하고 각 체질에 따라 생리, 병리 및 치료와 약물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東醫壽世保元』<sup>3</sup> 「四端論」에서 “太少陰陽之臟局短長 陰陽之變化也 天稟之已定 固無可論...”이라 하여 사람의 체질은 본래 타고난 것이라 명백히 밝히고 있는데 이는 소아에 있어서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病證論의 여러 부분에서 소아의 치험례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廣濟說」에서는 소아의 범위에 대해서 “初一歲 至十六歲 曰 幼”라하고 다시 “凡人 幼年 好聞見而能愛敬 如春生之芽”, “幼年 好文字者 幼年之豪傑也”, “幼年 七八歲前 聞見未及而 喜怒哀樂 樂膠着則 成病也 慈母 宜保護也”라 하였는데 이상을 통해 볼 때 東武는 보편적인 소아의 특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였으나 소아의 생리, 병리적 특징을 따로 성인과 다르게 설명한 부분은 없으며 결국은 소아에 있어서도 四象人에 따른 喜怒哀樂의 偏急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한다고 보고 처방도 거의 성인과 같이 사용하였다.

이렇게 東武는 소아의 질병에 있어서도 四象體質에 입각하여 관리할 것을 제시하였는데 실제 임상

에서 기존의 설문지 등을 통한 소아의 체질 감별이 어렵고, 또한 소아는 성인과는 다른 생리, 병리적 특징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이 각 체질과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실제 임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려진 바가 거의 없어 현재 소아에게 사상체질의학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다<sup>4,5</sup>.

현재 소아의 체질과 관련된 연구로 閔 등<sup>2</sup>은 “小兒의 體質의 特性과 四象醫學의 考察”에서 역대의 醫家들과 최근의 중국문헌에서의 소아체질에 관한 연구와 함께 『東醫壽世保元』에서의 소아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살펴본 다음, 소아의 특성에 대한 인식을 통한 소아체질과 四象醫學에서 말한 체질과의 상관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통하여 실제임상에서 辨證論治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체질에 따른 처방을 운용한다면 소아의 각종질병에 대한 치료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韓 등<sup>3</sup>은 “小兒의 四象體質別 疾病 및 症狀 類型的 차이”라는 연구에서 외래 소아환자에 대해 기존의 설문지를 이용하여 사상체질을 감별하고 또 다른 설문지를 통해 체질에 따른 常病歷과 過去歷, 鹿茸加味製 服用 後의 變化, 알리지성 疾患에 대해 조사하였다.

金<sup>10</sup>은 “四象體質別 幼兒들의 體格, 氣質 및 行動特性에 관한 研究”에서 유아의 사상체질감별은 충분히 가능하며 유아의 경우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사상체질에 따라 체격, 기질, 행동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차이는 李濟馬의 사상체질 특성분류와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최근에 金<sup>11</sup>은 “小兒體質鑑別에 대한 研究”에서 東醫壽世保元과 中醫學에서의 소아의 생리 병리 특징에 근거하여 소아의 사상체질감별을 제시하였는데 음식을 잘 넘기지 못하고 성격이 과격한 소아는 대부분 太陽人이고 쉽게 기침하고 호흡계통 질병이 자주 반복하여 발병하는 소아는 대부분 太陰人이며 쉽게 설사하거나 소화계통 질병이 자주 반복하여 발병하는 소아는 대부분 少陰人이고 쉽게 편도선염이 발병하거나 열이 나며 혹은 五運, 五軌이 있는 소아는 대부분 少陽人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렇지만 이들을 포함한 그간의 연구에서는 소아의 포괄적인 사상체질적 특성에 관한 연구 및 이를 통한 소아 체질감별을 위한 객관적 지표에 관한 연구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남경희한방병원 사상체질센터에 2003년 3월부터 2005년 5월 사이에 내원하여 체질의학 전문의에 의해 체질이 확정된 초등학생 146명을 대상으로, 성격 및 감정, 대인관계, 놀이 및 일처리, 행동특징 등에 관해 부모가 작성한 설문지를 분석하여 초등학생의 사상체질적인 특성을 파악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소아 사상체질감별을 위한 객관적인 지표 및 설문검사지의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우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구대상자 총 146명 중 태음인은 66명(45.2%), 소음인은 43명(29.5%), 소양인은 36명(24.6%), 태양인은 1명(0.7%)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자 80명(54.8%), 여자 66명(45.2%)으로 남자가 많았다. 학년별로는 초등학교(초등1년~3년, 만 7세~9세)이 47명(32.2%), 초등학교(초등4년~6년, 만 10세~12세)이 99명(67.8%)으로 초등학교학년이 더 많았다.

성격 및 감정에 대하여 체질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으로는 ‘신경질적이고 짜증 많다’(소음인>태음인, 소양인), ‘생각이 깊다’(태음인>소양인)의 2문항이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에서 “少陰人 恒有不安定之心...”, “太陰人 恒有怯心...”, “太陰之性氣 恒欲靜而不欲動”이라 한 것과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었다.

대인관계에 대하여 체질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으로는 ‘친구를 잘 사귀고 좋아한다’(소양인>태음인, 소음인)의 1문항이 있었으며 이는 『東醫壽世保元』의 “少陽之情氣 恒欲外勝 而不欲內守”를 근거로 살펴보면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金<sup>6</sup>의 연구에서 체질에 따른 유아들의 기질 차이 중 사회성 및 사교적인 특성에 있어 소양인이 태음인과 소음인에 비해 높았던 것과도 일치한다.

놀이 및 일처리에 대하여 체질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으로는 ‘운동을 좋아한다’(소음인>소양인), ‘꼼꼼하지 않다’(소음인>소양인),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소음인>태음인) 등 총 3 문항이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의 경우에는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에서 “少陰人 長於端重”이라하고 『東醫壽世保元』 「廣濟說」에서 “士林之人 宜有警戒 有警戒則福壽”이라 한 것과 비교하여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운동을 좋아한다’의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체질전문가들이 소양인 특성으로 임의로 분류했고,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에서 “少陽人 剽銳好勇”이라 한 것 등과 비교하여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었는데 다음의 행동특징에 대한 문항 중 ‘잠시도 가만있지 않고 계속 움직인다’와 ‘행동이 빠르고 민첩하다’에선 소양인이 소음인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 등으로 미루어 보아 소양인은 다소 정형화되고 제약적인 운동을 좋아하기보다 활동성이 많고 운동신경이 좋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듯하다.

‘꼼꼼하지 않다’의 경우에도 체질전문가들이 소양인 특성으로 분류했고,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에서 “少陰人 長於端重”이라 한 것 등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소음인이 자기 가 좋아하거나 집중하는 분야에선 꼼꼼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특히 부모가 보기에는 꼼꼼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한편 유아들의 놀이형태에 대해 金<sup>6</sup>의 연구에서는 소음인은 다른 체질에 비해 또래들과의 놀이에 소극적이어서 놀이에 참여하지 않거나 집단으로 노는 놀이보다는 혼자서 노는 놀이가 많다고 하였다.

행동특징에 대하여 체질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으로는 ‘잠시도 가만있지 않고 계속 움직인다’(소양인>소음인, 태음인), ‘행동이 빠르고 민첩하다’(소양인>태음인), ‘덜렁거린다’(소양인>소음인), ‘움직이는 것을 싫어한다’(태음인>소양인) 등 총 4문항이 있었으며 이상의 결과는 『東醫壽世保元』에서 “少陽之性氣 恒欲舉而不欲措”, “少陽之情氣 恒欲外勝 而不欲內守”, “少陽人體形 上盛下虛 胸實足輕 剽銳好勇...”, “太陰之性氣

恒欲靜而不欲動”, “太陰之情氣 恒欲內守 而不欲外勝” 등의 근거로 살펴보면 대체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었다.

또한 이는 金<sup>6</sup>의 연구에서 유아의 체질에 따른 기질 중의 활동성 및 행동특성을 관찰해 본 결과 소양인이 가장 활발하고 태음인, 소음인의 활동성은 다소 낮으며, 소양인은 다른 체질의 유아에 비해 교사뿐 아니라 주변환경에 대해 관심을 자주 보이고, 놀이를 오래 지속하지 않고 자주 바꾸며, 공격적 행동 역시 자주 사용하였다는 것과도 일치하는 결과였다.

기타 5%이하 응답률을 보인 문항 중에서 체질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으로는 ‘나서기를 좋아한다’(소양인>태음인, 소음인), ‘비슷한 취미나 또래형성을 잘한다’(소양인>태음인, 소음인), ‘판단력이 빠르다’(소양인>태음인, 소음인) 등이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 연구대상의 범위나 수에 따라 이러한 문항들도 체질적 특성파악을 위한 유의한 문항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본 연구에서 통계적 유의성( $p<0.05$ )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체질 간에 비교적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문항들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 있어서 태양인의 수가 너무 적어 사상체질별 통계분석에서 빠진 점, 기술식 설문지를 작성함에 있어 부모의 표현용어나 방식 등의 다양함으로 인한 그 진술의 객관성 문제, 그리고 응답내용을 정리하고 분류함에 있어 연구자의 주관이나 왜곡이 다소 개입될 수 있었던 점 등에서는 추후 보완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또한 앞으로 초등학교 대상 외에도 유치원 이하의 유아나 영아 또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상체질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하며, 향후 이를 토대로 기준이 되는 연령대나 발육의 단계 별로 소아의 사상체질을 감별하기 위한 객관적인 지표나 설문검사지 등의 개발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 V. 結 論

이상으로 강남경희한방병원 사상체질센터에 2003년 3월부터 2005년 5월까지 내원하여 체질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체질이 확정된 초등학교생 146명을 대상으로, 부모가 작성한 설문지를 정리하여 통계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동기 아동의 사상체질적 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연구대상자 총 146명의 체질별 분포는 태음인 66명(45.2%), 소음인 43명(29.5%), 소양인 36명(24.6%), 태양인 1명(0.7%)의 순이었고, 성별 분포는 남자 80명(54.8%), 여자 66명(45.2%)으로 남자가 많았다. 그리고 학년별 분포는 초등저학년(초등1년~3년)이 47명(32.2%), 초등고학년(초등4년~6년)이 99명(67.8%)이었다.

2. 성격 및 감정에서는 ‘신경질적이고 짜증 많다’가 소음인이 타체질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으며, ‘생각이 깊다’는 태음인이 소양인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3. 대인관계에서는 ‘친구를 잘 사귀고 좋아한다’가 소양인이 타체질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다.

4. 놀이 및 일처리에서는 ‘운동을 좋아한다’가 소음인이 소양인보다 유의하게 많았고, ‘꼼꼼하지 않다’는 소음인이 소양인보다 유의하게 많았으며,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는 소음인이 태음인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5. 행동특징에 있어서는 ‘잠시도 가만있지 않고 계속 움직인다’가 소양인이 타체질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으며, ‘행동이 빠르고 민첩하다’는 소양인이 태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고, ‘덜렁거린다’는 소양인이 소음인보다 유의하게 많았으며, ‘움직이는 것을 싫어한다’는 태음인이 소양인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병 및 증상 유형의 차이.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02;16(2):143-161.

6. 박혜선, 주종천, 김주한, 김경요.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 II)의 임상적 활용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14(2):35-44.
7. 허만희, 고병희, 송일병. 체간측정법에 의한 체질판별.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14(1):51-66.
8. 윤종현, 임규성, 김상복, 이준희, 박계수, 이수경,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한국인 남자 30~40대와 50-60대의 사상체질별 안면형태에 관한 비교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12(2):143-152.
9. 양상복, 김선형, 유준상, 김형석, 이영훈, 김달래. Pitch Range와 Bandwidth를 이용한 음성특성과 사상체질간의 상관성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3):31-39.
10. 김미경. 사상체질별 유아들의 체격, 기질 및 행동특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11. 김복남, 허향란. 소아체질감별에 대한 연구. 중국연변민족의학연구소. 2005.
12. 김정택, 심혜숙. MMTIC(어린이 및 청소년 성격 유형검사). 한국심리검사사연구소.
13. 위영희. 영유아 기질측정 척도(IBQ)의 타당화에 관한 일 연구. 아동학회지. 1994;15(1):1-17.
14. 조봉환. 초등학교생의 스트레스 대처를 위한 지행적 프로그램 개발. 한국행동요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2004.
15. 김형미. 유아의 기질에 따른 실외 놀이형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16. 정영미. 유아의 기질과 적응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17. 전경원. 사상체질 분류에 의한 브레인스토밍 집단 구성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12(1):48-62.
18. 김덕근, 김윤희, 김장현, 박은정, 백정환, 이승연, 이진용, 장규태. 동의소아과학. 정담출판사, 서울, 2002:27-28.
19. 홍창의편. 소아과학.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서울, 2001:15.
20. 허준. 동의보감. 남산당, 서울, 1992:1006.

## VI. 參考文獻

1. 鄭啓仲. 略論小兒體質三論. 河南中醫. 1997;17卷1期:3-4.
2. 민상연, 장규태, 김장현. 소아의 체질적 특성과 사상의학적 고찰.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01; 15(2):121-139.
3.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임상편람 제2권. 2004.
4. 박성식, 박은경, 최재영. 설문지에 의한 사상체질판정의 일치도 분석. 사상체질의학회지. 1999; 11(1):103-117.
5. 한윤정, 장규태, 김장현. 소아의 사상체질별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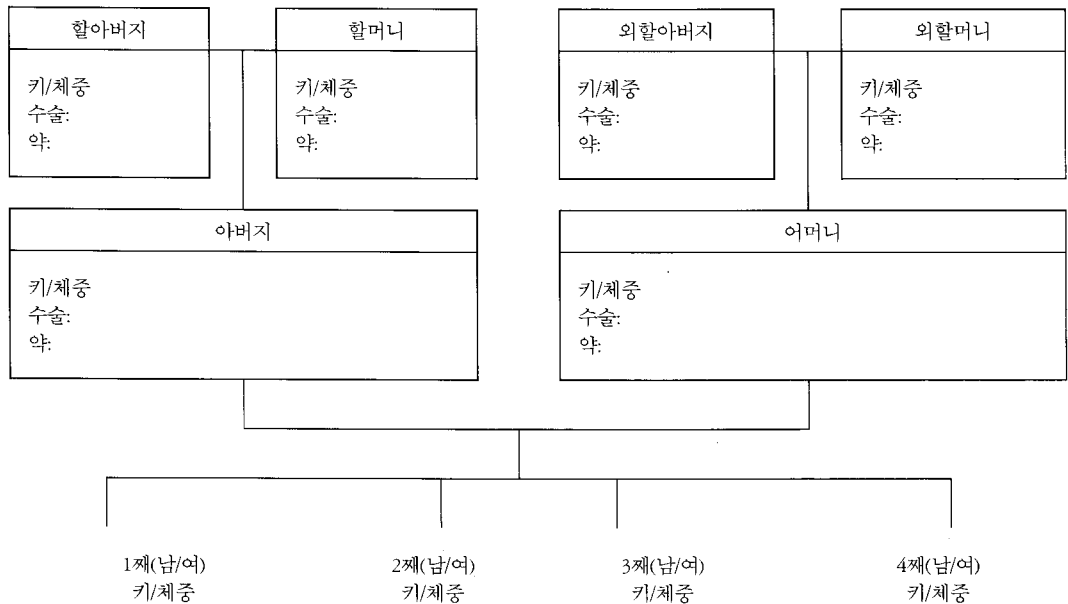
<附錄 :說問紙>

- 다음은 우리 아이의 고유특성 및 체질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평소에 관찰하셨던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여 주시면 됩니다.
- 어머니께서 적어 주신 것은 아이 체질진단 및 치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록번호		이 름	
성별/나이	남, 여/ 만 세	기 록 자	엄마 / 아빠
학 년	유치원/초등 년/중학 년	날 짜	200 . .

[가족력] 다음은 우리가족의 질병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예, 수술, 치료약 복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키 (cm)												
몸무게 (kg)												

[성격 및 감정] 평소 우리 아이의 독특한 개성은 무엇인가요?

(예1. 느긋하다)

- 1.
- 2.
- 3.
- 4.
- 5.

[대인관계] 우리아이의 대인관계 및 유치원(초등학교)활동 등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예1. 친구사귀기가 어렵다) (예2. 멧을 많이 낸다)

- 1.
- 2.
- 3.
- 4.

[일처리] 우리아이의 놀이 및 일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인가요?

(예1. 손재주가 있어 조립을 잘한다) (예2. 꼼꼼하다)

- 1.
- 2.
- 3.
- 4.

[행동특징] 우리아이의 움직임과 행동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 1.
- 2.
- 3.
- 4.

[단점] 우리아이의 문제점 및 보완해야 될 면은?

- 1.
- 2.
- 3.

[장점] 우리아이의 뛰어난 장점 및 개발해야 될 면은?

- 1.
- 2.
- 3.

[기타]

- 1.
- 2.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희대학교 강남경희한방병원 체질의학센터